

The·K



Monthly Magazine
February 2018
Vol.06

CONTENTS

2018 FEBRUARY VOL.06



SPECIAL THEME 용기

4

여는 글
용기가 필요한 순간,
오늘은 오늘의 용기로

6

Infographic
씩씩하고 굳센 기운 '용기'에 대하여

8

Essay
우발적 청혼
김현식 충북 제천여중 교사

10

Interview 1
맑고 밝고 따뜻한
바다의 너른 품처럼
여태전 경남 남해 상주중 교장

14

Interview 2
여행을 통해 고민하고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다
박찬수 강원 평창 진부초 교사

18

아름다운 동행
함께, 천천히 걷고 뜨겁게 쓰다
강심원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 **류근원** 동화작가

24

먼 나라 교육 편지
석양이 예쁜 나라, 미소가 예쁜 나라, 피지 안에서
이민정 인천 작전여고 교사

28

트렌드 Go Go
블록체인 기술, 정말 세상을 바꿀까?

30

행복 만들기
겨울, 가족이 되는 계절 - 스노보드 동호회 '백스툼'

34

네오필리아
차레상, 지역마다 다른 이색 음식

36

아는 공간
109년을 거슬러 올라 만나는
비밀의 정원 '창경궁 대온실'

38

브랜뉴 여행
아드리아해의 달콤한 시간을 감각하다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반도

44

추천 핫플레이스
대전광역시 추천 명소



46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48
재테크 팩토리
 이사철, 내 집 마련은 실거주 청약 전략으로

50
알쓸돈팁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돌려받자!
 보험세액공제, 카드소득공제 편

52
The-K Focus
 퇴직 시 대어금 갚느라 가입 못했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제 가능하다

54
The-K Family
 The-K손해보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58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1
독자 이벤트
 2월 즉석 당첨 이벤트

62
The-K Info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서비스 안내

The·K

VOL.06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2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강정구 정수연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김홍진 황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용기가 필요한 순간,
오늘은
오늘의 용기로



새로운 시작에 우리는 많은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별한 소망에, 희망찬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상상은 도전을, 도전은 변화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용기'가 자리합니다.

용기가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꿈을 위해 도전도
불사르죠. 그러나 용기 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극복해야 할 것이 많아서'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내가 틀렸을까 봐' '용기를
내본 적이 없어서'...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직원공제회원의 설문조사 결과, 인생에서 '용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으로
많은 사람이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을 꼽았습니다.
작은 용기, 사소한 용기라도 내어 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반짝거릴 수 있는 용기,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용기 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용기로, 내일은 내일의 용기로
작은 용기가 모여 새로운 꿈을 만들 수 있도록.
어제보다 한 뼘 더 커진 용기로 내일의 변화를 꿈꿔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읊어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삶을 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언제나 갈망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씩씩하고 굳센 기운 ‘용기’에 대하여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진정한 자립을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2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겠죠.
공제회원들이 생각하는 ‘용기’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2018년 1월 3일 ~ 7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27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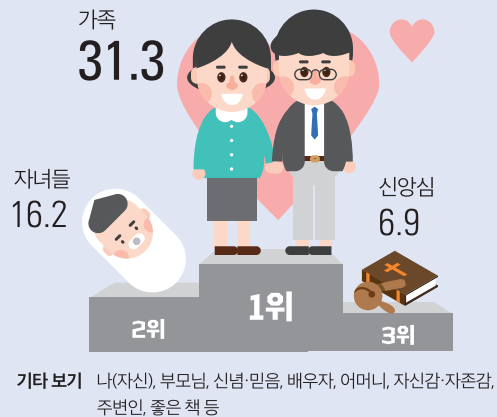
성별	남성	32.9%
	여성	67.1%
	20대	9.0%
연령	30대	34.7%
	40대	32.1%
	50대	16.7%
	60대 이상	7.5%
직업	교원	59.0%
	비교원	41.0%
	유치원	2.5%
근무하는 직장	초등학교	27.6%
	중학교	12.3%
	고등학교	14.2%
직장	대학교·병원	27.8%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6.2%
	기타	9.4%

(단위 : %)

**Q. ‘용기’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관련 단어는 무엇인가요? (최대 2개)**



**Q. 내게 가장 용기를 주는 것(존재)은
[] (이다.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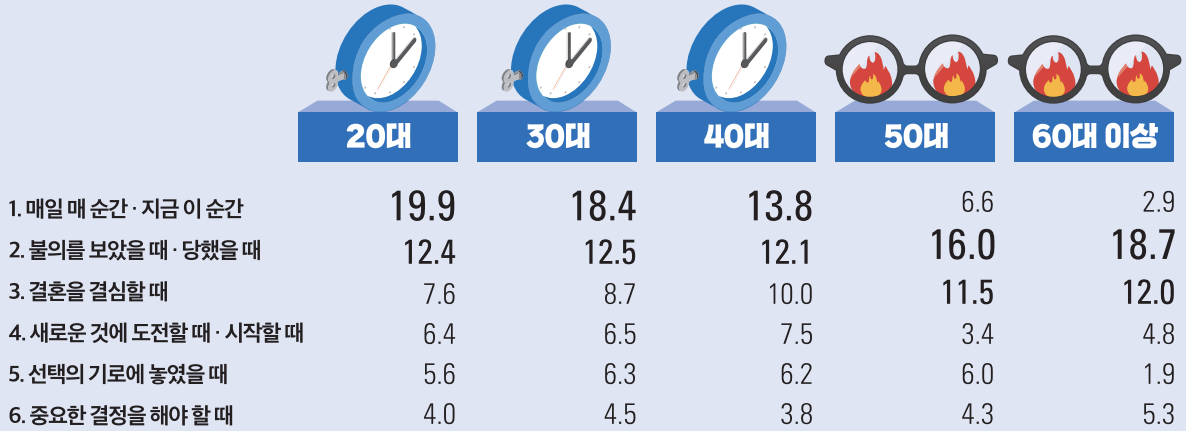


Q. ‘용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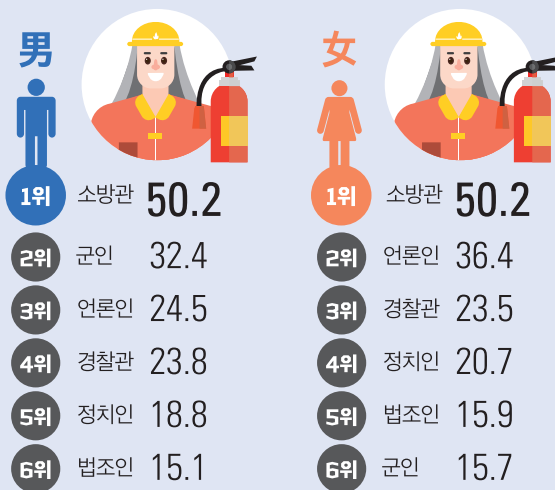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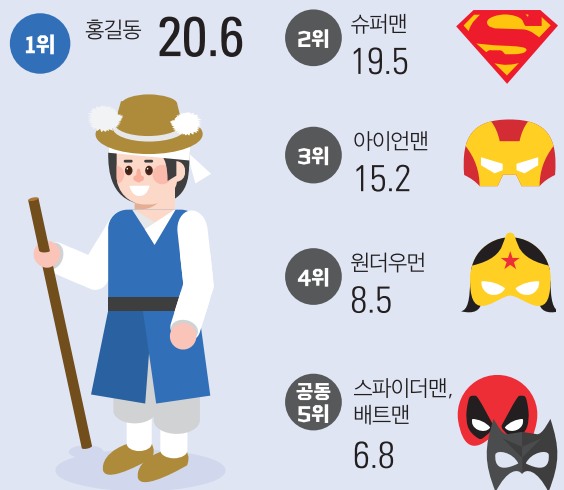
Q.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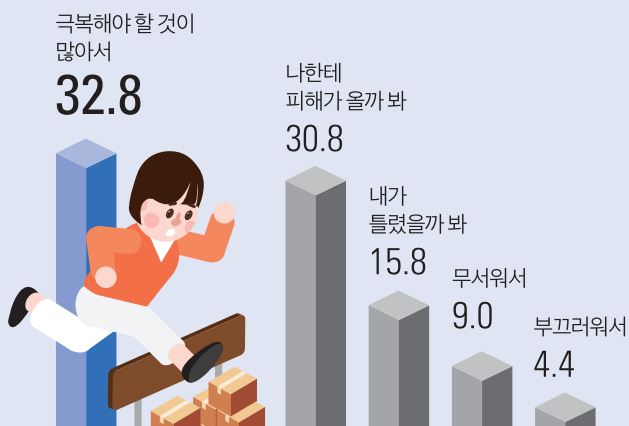
Q. '용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Q. 가장 좋아하는 영웅 캐릭터는 누구입니까?



Q. '용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Q. 귀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기타 보기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까 봐, 귀찮아서, 용기를 내본 적이 없어서

우발적
청혼

나이 두 살 터울 남매간 내 아이들이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르렀을 때다. 녀석들은 어느 날부터 '사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별일 아닌 것에도 입을 가리고 과하게 웃는가 하면,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분위기가 조금만 이상하게 흘러도 지레 얼굴이 벌게져서 슬쩍 자리를 뜨곤 할 즈음이었다. 마침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길이었다.

아들 녀석이 물었다.

“엄마 아빠는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딸애 역시 빠른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다.

운전하던 남편은 뒤를 돌아보며 평생 이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느 날 갑자기 너희 엄마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 아빠를 몰아붙이더니 협박하듯 말했지. ‘우리 결혼하자.’”

“피~ 전혀 낭만적이지 않네. 그때 아빠는 뭐랬어?”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하고 오줌을 지렸지.”

아이들 동시에 일어서면서 유리구슬 쏟아지듯 재잘댔다.

“와~ 아빠가 너무 멋졌나 보다.”

또 “미래의 우리가 불현듯 궁금했었나?”

한동안 오두방정을 떨던 딸애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엄지를 척 치켜들며 말했다.

“역시 우리 엄마 용기는 갑이지.”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스물세 살 3월에 시골 고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이 났다. 철부지 막내의 이른 독립에 걱정 많으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전입생 같은 모습으로 부임을 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새내기 교사로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즈음, 흥미진진한 과제가 부과되었다. 당시 제5공화국이 막 시작되던 때라 정의사회 구현을 표방한 다양한 업무들이 학교로 시달되곤 했는데 매달 열리는 주민 반사회 참석도 그중 하나였다. 정부 시책 및 사업을 홍보·계도하고 회의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마치 일제강점기의 친일 순사 같은 책무가 주어졌다.

내 관할 주민(대부분 학부모)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으므로 부족한 일손에 밝은 시각이 돼야 비로소 반사회가 시작되곤 했다.

바야흐로 문제의 그날이었다.
 몇 개월째 사랑니 주변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던니 그날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내 두통까지 동반해 말썽을 부렸다. 퇴근길에 치과외사의 권유로 사랑니 두 개를 발치하기로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치아를 잡아당기는 의사의 힘이 얼마나 강하던지 내장까지 잇몸으로 끌려 올라올 듯했다. 치 떨어는 뿌지직~ 달그락 소리가 이어졌고, 간호사는 연신 “조금만 참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를 반복하던 어느 순간 허전한 느낌과 함께 내 사랑니는 의료용구에서 또르륵 소리를 내며 생을 마감했다.

잇몸을 꺾매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도망치듯 치과 계단을 내려오는 내 뒤통수에 대고 후덕하게 생긴 간호사가 주의 사항을 줄줄이 읊었다.
 “발치한 자리에 얼마간 출혈이 있을 것이니 지혈이 될 때까지 지혈 솜을 절대 빼지 마세요. 마취가 완전히 풀려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음식 드시지 마세요. 가급적 말씀하지 마세요. 찬 바람 들어가면 해로워요.”
 반상회가 열리기로 한 장소로 걸어가면서 간호사가 알려준 주의사항에 내 생각 하나를 더 얹었다.
 ‘주민들(학부모님)께 어리다고 얄보이지 않게 언행 조심할 것.’

역시 난 반상회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고 도도한 자세로 꼳꼳하게 앉아 다정한 주민들이 권하는 그 어떤 음식도 마다했고, 몸 낮춘 안부 인사에도 그저 목례로 답하면서 잇몸에 지그시 힘을 주었을 뿐이었다. 성가신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려고 거울을 보았다.
 “헐.”
 거울 속의 형상은 분명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백지장 같은 얼굴에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산발했고, 핏기 없는 입술 양쪽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턱선을 타고 목까지 흐른 피는 마치 돌출된 혈관처럼 붉은 강줄기를 이루며 말라 있었다. 마취 탓에 피가 흘러내림을 감지하지 못했었나 보다.

단언컨대 내 삶은 그때 거울을 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그날 밤 나는 의지의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빙의 환자처럼 오랫동안 내게 정성을 쏟아부었던 남자친구의 편지에 짧은 답신을 보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개코씨(남편 별명)와 하겠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이 우발적인 청혼이 그 사건과 심리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김현식

충북 제천여중 수석교사. 따뜻한 글에서 한없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는 '기다림'이라 말한다. 특히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은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에 대한 믿음과 묵묵한 기다림, 아니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



맑고 밝고 따듯한 바다의 너른 품처럼

여태전 — 경남 남해 상주중 교장



강물은 만나는 모든 것을 공부한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가 된다

여태전 교장은 찻물부터 끓였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에겐 귀한 차를 대접한다며 웃었다. 이내 교장실이 차향으로 가득해진다. 교장실을 둘러보니 다양한 다기, 체 게바라 포스터, 신영복 선생의 판화로 가득하다. 좋아하는 것을 하나하나 두다 보니 한 아름 모였다. 모두 그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그중 바다는 그의 마음이 가장 닿아 있는 곳이다. 바다를 이야기하자 그의 눈이 빛난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판화에 있는 글귀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말입니다.”

“왜 하필 바다일까”란 질문에 여태전 교장은 씬 없이 이어간다.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를 분별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소금은 얼마나 될까요? 정작 3%밖에 안 됩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3%의 소금, 그는 3%의 삶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한다. 바다처럼 온전하게 받아들여기를 잘하고 있는지, 바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고 있는지 항상 곱씹는다. 바다 이야기에 찻잔이 식어갈 무렵, 교장실 문이 드르륵 열린다. 아이들이다. 멀리서 온 손님이 반가운지 교장실을 기웃거린다. 여태전 교장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함박웃음을 짓는다. 교장실은 항상 열려 있단다. 외근을 가더라도 교장실 문은 잠그지 않는다. 24시간 사랑방 같은 곳이다.

“작은 학교에 교장실이라도 열려 있어야지. 학생도, 부모도 언제든 와서 차를 마시고 과자도 먹고 갑니다.”

거울 옆에는 전교생의 사진이 붙어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본단다. 겨울 바다의 운슬보다 아이들의 이름이 더 반짝인다. 여태전 교장의 아침 일과는 그렇게 시작한다.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 거리. 그곳엔 남해와 함께 자라는 상주중이 있다. 경남 남해 상주중은 반달처럼 내륙으로 깊이 파인 해안선 안자락에 자리한다. 해변에서 불어오는 솔바람마저 새롭다. 새벽 버스를 타고 오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 찰나, 신발도 어영부영 신은 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달려온다. 드디어 여태전 상주중 교장을 만났다.



아픈 사랑도 사랑이여라

사실 상주중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까지 놓인 학교였다. 바다를 품은 학교는 천혜의 위치에 자리하다 보니, 여태전 교장을 비롯한 많은 교육 가족은 학교가 되살아나길 바랐다. 아름다운 남해 앞바다의 교육 마을을 꿈꿨다. 마침내 꿈은 이루어졌다. 2015년, 상주중이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은 것이다. 전국에서 열세 번째, 경남에서는 첫 시작이었다.

첫 시작엔 항상 그가 있었다. 산청 간디고와 전국 최초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 공모 교장으로 4년간 역임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30여 년을 치열하게 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 집은 경남 진주이지만, 상주중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동고동락한다. '삶이 교육이고 교육이 곧 삶이다'라는 말처럼 삶과 교육을 분리하지 않는다. 일상을 교육과 함께하다 보니 영예도 안게 됐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큰 상인 '교보교육대상'을 수상한 것.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심한 허리통증과 몸살에 시달렸다.

"부족함에서 오는 부끄러움 때문이겠지요. 혼자 잘난 게 아닌데, 늘 같이 뜻을 함께하고 품은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대표주자로 받은 격인데... 바다처럼 좀 더 낮아져야겠어요."

여태전 교장은 다시 힘주어 강조한다.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식구들이 다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칭찬과 꾸중의 저울질은 같아야 한다는 말을 깊이 공감하며, 이 또한 건너야 할 과정이라 말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좋아하던 술도 100일간 끊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픈 시기였다. 특히 사람과 헤어짐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더욱 심하게 앓았다.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죠. 특히 헤어짐과 새로운 출발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을 놓쳤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걸지도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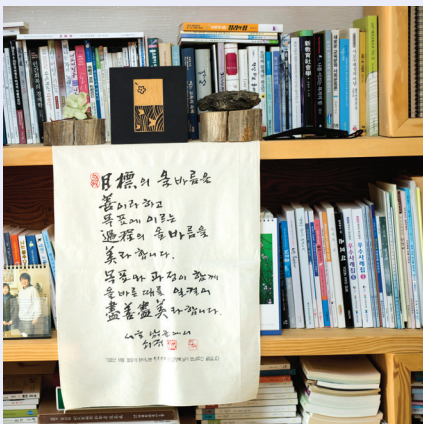
어젯밤 상주중은 모래 해변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제는 좀 더 겸허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방식을 배워야겠다고. 평소 말과 글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 그였지만, 또 다른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사랑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우리가 모두 행복할 용기, 그 시작에 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은 대안학교를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모인 집합소라고 생각한다. 아직 대안학교의 인식은 그러하다. 그러나 여태전 교장이 말하는 대안학교는 다르다. 살아가는 삶과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내일 행복을 위해 오늘 행복을 미루지 않는 것. 행복을 연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삶의 학교'라 말한다.

'삶의 학교'가 모토인 상주중은 올해 1~3학년 모두가 있는 완성 학년이 된다. 부모, 아이들, 교사... 서로가 없었다면 용기를 낼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서로를 칭찬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학부모 임원 회의가 자주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8 신입생 환영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1기 부모님이 2기 부모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3기 부모님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죠. 2박 3일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도 부모님들이 준비하고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대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관화에 있는 글귀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이가 교육의 중심이지만 부모들도 좋은 교육 마을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느낀다. 학교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또한, 멈추지 않는다. 또다시 꿈꾸는 중이다. 배움과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교육을 중심에 둔 보물섬고(가칭)의 설립을. 보물섬고는 여태전 교장이 말하는 ‘여행-창조-현장’을 중점으로 하는 ‘삶의 학교’와 일치한다. 새로운 감수성을 타고난 아이들에게 여전히 낮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단 한 명도 소외하지 않는 사랑-돌봄-소통을 가슴에 품은 ‘행복 학교’를 말이다. 들어올 땐 보지 못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판이 보인다. ‘이곳은 희망의 역사입니다. 남해군산 교육마을의 한 별, 평생 친구들의 전당 상주중학교.’ 그렇다, 이곳은 모두의 희망과 용기가 담긴 곳이다.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바다처럼 말이다.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찬수 강원 평창 진부초 교사의 삶에 이처럼 잘 어울리는 격언이 또 있을까. 지금껏 다녀온 나라만 95개국, 올해 쿠바에서 100개국 방문이라는 도장을 찍는 박찬수 교사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다.



여행을 통해 삶으로 나아가다 고민하고 도전하는

박찬수 | 강원 평창 진부초 교사



TRAVEL

실�크로드를 꿈꾸다

TV에서 주말 아침마다 방송했던 만화 <마르코 폴로의 모험>은 소년에게 그야말로 황홀경의 대상이었다. <동방견문록>을 기반으로 한 이 만화는 소년의 머릿속에 '실�크로드'라는 단어를 단단히 각인시켰고, '나도 커서 꼭 저렇게 여행을 가야지'라는 꿈을 꾸게 만든 거대한 출발점이었다.

2004년도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으니 올해로 14년 차 선생님. 그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손꼽았다. 어머니가 교직에 몸담으셨던 것, 독립하고 싶었던 것, 교대 등록금이 저렴했던 것... 그중에는 방학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 생애 최초의 해외여행은 티베트였어요. 2002년 한일월드컵이 끝난 뒤, 중국을 거쳐 실�크로드로 가겠다고 파키스탄에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러나 초보 여행가는 파키스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결국 방향을 틀어 티베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지 여행의 재미와 의미를 아주 진하게, 제대로 느꼈다.

"오지 여행의 매력은 현지 사람들에 있어요. 정말 순수했고, 하루 먹을 걸 마련하면 그걸로 너무 행복했죠. 티베트, 아프리카... 모두 그랬어요. 그중 티베트는 두 번이나 더 갔습니다."

역사를 만나, 경험을 사다

95개국을 여행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개 비슷했다. "부럽다" "돈이 많은가 보다" "영어를 잘하는구나" "위험하지는 않니?"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해외여행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시작된 것일 뿐이다. 적어도 박찬수 교사에게는 그랬다.

"여행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나라보다는 비행기 표가 싼 나라를 찾아갑니다. 2016년 2월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왕복 비행기 표가 49만원에 나와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번엔 뉴욕에 갈 거예요. 역시 카리브해 크루즈가 60만원대에 나와 결정했죠. 또 유럽은 겨울에, 남미는 여름에 가는 식으로 비수기를 노려요. 크루즈도 1월이 비수기이거든요."

열심히 발품을 팔고 눈에 불을 켜서 최대한 저렴한 티켓을 찾아 떠나고, 점차 그 주변으로 여행 범위를 넓히는 그의 여행 노하우에 동석자 모두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

박찬수 교사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과 자신감 역시 오지 여행에 큰 보탬이 됐다. 어딜 가나 현지인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만난 여행자와 정보를 교환하며 해당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반드시 해보려는 도전정신이야말로 그가 안전하게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스킨스쿠버를 하고, 호주에 가면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터키에 가면 열기구를 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도 현지에서는 싸게 할 수 있으니깐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거로 끝내지 않죠. 영어요?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자신 있게, 아예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선 보디랭귀지, 그림, 눈빛으로 소통하면 되니 불편하지 않았어요. 전~혀.”

여기에 하나 더! 역사를 워낙 좋아하는 박찬수 교사는 해당 국가의 유네스코 유적을 반드시 돌아본다. 그만의 여행 철칙이다. 낱아서 너털너털해진 손때 묻은 여행 매거진 <론리플래닛>은 여행가인 그를 설명하는 훈장처럼 보인다.

첫 여행과 지금 여행을 비교해 서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겠죠. 예전에는 해당 도시에 도착하면 숙소를 잡는 게 가장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예약해두니까요. 예전에는 지도를 들고 헤맸지만, 지금은 구글맵을 켜고 다니고요.”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이 모두 좋기만 한 것은 아니란다.

“과거에는 길을 잃어버리면서 특별한 인연을 많이 만났어요. 하

지만 지금은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 특별한 인연을 만날 기회도 없었죠.”

모든 것이 너무 안전하고 확실한 시대, 그에게 여행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여행가를 넘어 글로벌 교육 콘텐츠 개발자로

10년을 넘게 지구촌 곳곳을 누빈 그는 자신 또한 초기 여행 때와 비교해 참 많이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여행 자체가 제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상에서 동떨어지면서 ‘나는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는 건 없나’ ‘돌아가면 뭘 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잖아요.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외국에서는 나라나 지역 사이를 이동하면서 생각하고 설계하는 등 생산적인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뮤지컬부가 세간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어찌하면 넓은 세상을 보고 겪은 그의 관록과 경험이 빚어낸 결정체인지 모른다.

“2004년에 강원 양양초에 부임했는데, 학예회에서 연극을 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1년 뒤 교장선생님께 연극부를 만들겠





“개인의 여행을 넘어서
글로벌 교육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습니다. 아직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분야를 개척하면서 교육 사업을
매뉴얼로 만들고 싶어요.”



다고 했죠. 그러다가 뮤지컬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단국
대 뮤지컬학과 석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면접 때 뮤지컬계의
대부이신 윤호진 연출가님 앞에서 교육 뮤지컬을 만들고 싶
다고 했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된 진부초는 외교부 주관 ‘2017 국민과 함
께하는 공공외교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3년 동안 프랑
스 브루 쥘베른 초등학교와 문화교류를 하며 직접 공연을 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 APEC 국제교육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해
태국 치트랄라다 왕립학교를 방문했고,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에서도 공연을 펼쳤다. ‘강원도 청소년 활동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고, 2011년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장려상과 교과부 주최 ‘방과 후 학교 대상 우
수 교사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으니 여행에서 시작된 그의 다채
로운 교육 여정은 참으로 놀랍고 신선했다.

박찬수 교사에게는 꿈이 있다. 어릴 때는 전 세계 국가를 여행하
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개인의 여행을 넘어서 글로벌 교육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
를 내고 싶습니다. 아직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분야를 개척하면
서 교육 사업을 매뉴얼로 만들고 싶어요. 올해에도 우리 전통놀
이를 프랑스어판으로 만들어 프랑스어권 나라에 보급하고 유
네스코한국위원회와 추진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궁극했던 초등학생은 100개국을 여행한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녹여 글로벌 교육 콘텐츠 제작
에 뛰어들려고 한다.

“여행은 세계 삶의 활력소입니다. 여행을 통해 저는 고민하고 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신입 교사 시절,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찌나 두려웠는데, 여행을 통해 변치 않은 에너지와 활력을 얻
은 셈이죠.”

여행을 통해 삶의 선순환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는 박찬수 교사.
열정과 목표가 있기에 그는 작은 교실에서도 여전히 뚜벅뚜벅
도전하고 여행하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함께, 천천히 걷고 뜨겁게 쓰다

강심원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류근원
동화작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강심원 경기도교육청 장학관과 류근원 작가와의 만남도 그러했다. 작은 초등학교에서 선배 교사와 후배 교사, 거슬러 올라가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그 시절의 인연이 지금껏 ‘글’을 매개로 이어오리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두 사람이 함께한 수원 나들이도 아마 그들의 인생에 불쑥 주어진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으리라.

글로 만난 사람들

활짝 웃으면 반달눈이 되는 류근원 작가와 반듯한 모범생 포스를 반경 1km까지 풍기는 강심원 장학관은 얼핏 참 달라 보이는 인물이었다.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다면 막연히 좋은 느낌을 자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이었다.

“저는 류근원 선생님을 처음에 글로 먼저 만났어요. 선생님의 동화 <노래하는 물풍금>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댐 때문에 마을이 물에 잠기는 이야기였는데, 제 고향이 충주댐이 들어선 단양이었던 덕분에 정말 인상 깊게 읽었지요.”

독자이자 팬으로서 마음에 두던 류근원 작가를 실제로 만난 건 1990년대 초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였다.

“그때부터 선후배 교사로서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되었죠. 지금까지 류근원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동화작가이자 선생님입니다. 인간적이고 소탈한 매력이 가득하신 분으로 제가 오늘 여행을 함께 하고 싶다고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이시죠.”

2년 전 안산 덕성초 교장으로 정년을 마친 류근원 작가가 옆에서 눈꼬리를 휘며 조금은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아이들에게 뜨겁게 사랑받았던 동화구연



교장선생님이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화작가로서 그가 풍기는 아우라가 온화하지만 강하다.

벽화 골목을 걸으며 추억에 잠기다

오늘 여정은 강심원 장학관이 고심 끝에 마련한 것이다. 1906년에 개교한 수원 매산초에서 오래도록 교장직을 맡았기에 옆동네 안산에서 정년을 마친 선배에게 수원의 요묘조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가 제일 먼저 일행을 이끈 장소는 행궁동 벽화마을이다.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골목길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넣어 조성한 거리다. 한겨울 평일 낮에 들어선 벽화마을은 꽤나 한적하다. 그러나 구석구석 보물처럼 숨어 있는 그림을 찾아내는 재미, 불쑥 예기치 않게 골목길이 등장하는 유쾌함에 흰머리 희끗한 선후배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즐거움이 감돈다. 군데군데 빛바랜 벽화도 보이지만 글 쓰는 선후배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 보인다. 세상 모든 것이 어찌 절정에만 머물러 있으랴. 빛과 바람, 비에 씻겨 가는 모든 것은 덧칠하고 보수하지 않아도 그 자체

로 의미가 있다.

강심원 장학관과 류근원 작가가 탄성을 지른 곳은 어느 허름한 여인숙 앞이다. 낮은 기와집에 페인트로 직접 쓴 듯한 삐뚤삐뚤한 글씨체의 간판을 단 ‘금보여인숙’. 두 사람은 기꺼이 그 앞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시절에는 아마도 이런 여인숙을 지금보다는 훨씬 흔하게 만났을 터.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대 초반으로 날아간 듯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중간중간 아이들 그림이나 동상 앞에서 유독 환하게 웃었다. 류근원 작가에게 아이들은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대상을 넘어, 그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 절대적인 존재이자 끝없는 애정의 대상이다.

“1980년대 초반, 벽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했어요. 그런데 책이 많지 않아 아이들은 읽었던 책을 읽고 또 읽어야 했지요. 결국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줬는데 모두 ‘너무 재밌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이들에게 받은 그 칭찬이 저를 작가의





“책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존재입니다.
IT가 대세인 세상에서 책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멀어져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책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로 들어서게 한 거죠.”
옆에서 강심원 장학관이 이야기를 거든다.
“선생님은 동화작가로서도 큰 자취를 남기셨지만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교장선생님으로도 유명
하셨어요. 재직하실 때도 교장실보다 캐릭터 복장
으로 교실을 찾아다니며 직접 동화구연을 해주셨
거든요. 아이들이 다들 좋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였
다고 해요.”
피에로 교장, 산타 교장으로 불리며 칭찬운동, 인
성운동을 펼치던 그가 학교를 떠났을 때 얼마나 아
이들과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그 뒷길을 적셨을지
새삼 그림이 그려졌다.

함께 책 읽는 세상을 꿈꾸다

벽화마을을 빠져나와 이번에는 수원화성으로 천
천히 걸음을 옮겼다. 수원화성(華城)은 정조가 아
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화

산(花山)의 현릉원(顯隆園)으로 옮기면서 만든 곳
으로, 당파정치 근절과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축
성한 곳이다.

매산초 재직 시절, 아이들과 수원화성으로 산책을
자주 나왔다는 강심원 장학관의 이야기 속에서 도
착한 곳은 복수문(화홍문)이다. 잘 보존된 성벽을
따라 아직 남아 있는 겨울 낙엽을 밟아보고 각루에
올라 찬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 성벽을 내다보기도
했다. 얼마 전에 출판된 강심원 장학관의 시집 <패
랭이꽃>과 류근원 작가의 동화 <피노키오 짝꿍 최
점순>도 가방 속에서 나와 두 작가의 손에 소중하
게 들린다. 강심원 장학관이 그 옛날, 할머니가 알
려 주셨던 패랭이꽃의 추억이 담긴 자신의 시집을
꼭 천 채 당신의 ‘글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오래전, 한 아이가 제게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라
고 물었어요. 순간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된 게 꿈을 이룬 게 아니었나? 당황했었죠. 지금은

작가, 시인으로도 불리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만
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가르치기 위해
소개를 받아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에 가입 했는
데 1986년도 초였던 당시, 그 단체에 교육민주화선
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
요. 하지만 거기서 이오덕 선생님을 만나 글쓰기
지도법을 배웠고, 나중에 만난 류근원 선생님께서
동화를 써보라고 권하면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래
서 2007년도에 <소망이와 뚝이> 외 1편으로 동화
부문 신인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문학미디어 가을호(46호)에 시 부문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시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그
가 손에 든 <패랭이꽃>을 할머니와의 추억을 상기
하듯 힘주어 잡는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다. 현대미술을 이끄는 주요 작가로 손꼽히는
<줄리안 오피전>이 한창인 이곳에서 선후배가 나
란히 그리고 천천히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조
각, 설치, 미디어, 회화 등 다양한 매체가 관람객으
로 하여금 지루할 틈을 주지 않으니 모두가 흥미
로운 얼굴이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
트 작품 덕분에 짧은 오후 시간이 강렬한 인상으
로 채워졌다.

교육자로서, 작가로서 긴 세월을 함께해온 두 사람
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책을 많이 읽는 세상'
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책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존재입니다. 책을 안 읽
었더라면, 저는 교사도 동화작가도 되지 못했을 거
예요.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을 지낸 대문호 호
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
럼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와닿
습니다. IT가 대세인 세상에서 책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멀어져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행
복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책의 의미
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강심원 장학관이 류근원 작가의 말을 이어받아 글
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제게 글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 자신에 대
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제 글이 자존감, 자신
감을 갖지 못하는 소극적인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희망과 꿈, 힐링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진심
어린, 진심을 가득 담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벽화 속 아이들을 만나고, 수원화성을 함께 거닐며
소중히 가져온 책을 보물처럼 서로 나누는 오늘 하
루, 글을 쓰는 선후배의 만남은 그렇게 깊고 붉게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
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
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
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
을 떠날 수 있도록 <The-K 매
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선후배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수원 행궁동 벽화마을

2010년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
동 사람들'을 시작으로 작가와 주민, 자원봉사
자들이 만들어온 벽화마을이다. 오래되고 낙후
된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화성 안에 보전
된 근현대 삶의 모습을 보존하고 따뜻한 인간
미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포토존이 사방에 널
려 있으며 아름다운 벽화들이 곳곳에 자리 잡
고 있다.

-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82-6
- ☎ 문의 행궁동주민센터 031-228-7603



수원화성

정약용의 설계로 정조 18년(1794년)에 축성 공
사를 시작, 2년 만에 완공했다. 거중기, 활차 등
신기재의 발명과 활용, 동서양 축성술을 집약
한 축성 방법 등 18세기 과학과 건축, 예술을 살
필 수 있는 대한민국 성곽 역사상 가장 독보적
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CNN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되었다.

- 🌐 홈페이지 www.swcf.or.kr
- ☎ 문의 수원중립관광안내소 031-228-467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5년 10월 8일에 개관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 예술 플랫폼을
표방하는 미술관이다. 지역작가를 후원 발굴하
고 국내외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하며 전시,
작품 수집, 교육, 지역 미술 연구, 문화 행사 개
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 📍 주소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 ☎ 문의 031-228-3800

오늘 하루 여행을 마치고

강심원 후배에게

늘 가까이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둘이 짧게나마 여행을 한 건 처음입니다. 오늘을 기회로 서로가 가슴속에 더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봐도 한결같이 성실하고 반듯하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후배를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류근원 선생님께

오늘 여행엔 류근원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교직의 선배로서 늘 제게 커다란 귀감이 되어주셨지요. 그 열정을 옆에서 꼭 지켜봐왔고, 지금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동화책을 내면 서평을 부탁드립니다 마음먹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웃음)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석양이 예쁜 나라
미소가 예쁜 나라

피지 안에서



Bula, Vinaka! 불라(Bula)! 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 작전여자고등학교 교사로 피지
(안녕, 고마워!) 에 해외 파견근무를 나와 있는 올해 10년 차 수학교사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불라’는 피지에 온다면 가장 많이 들을 말로, 우리나라 말 중
‘안녕’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안녕’은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데, ‘불라’ 역시 그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피지에서는 모르는 사람
임에도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가 밝은 미소와 함께 ‘불라’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저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불라!’ 하고 인사를 합니다.
피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제가 1년간 해외 파견을 와 근무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소
개해드릴게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저에게는 모두 피식 웃음이 나오는
소중한 기억들이지만 몇 가지만 골라보려 합니다.

피지(Fiji)를 소개합니다 피지는 바다가 예뻐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섬나라예요. 총 333여 개에 이르는 섬을 합치면 경상북도 크기만 한 면적으로 피지 원주민 57%, 인도계 정착민 38% 등이 모여 살고 있죠. 꽤 많은 인도인이 원주민과 어우러져 살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신기합니다. 오래전 피지가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 원주민들의 일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답답해하던 영국인들이 인도인을 노동자로 데려왔고, 이후 그들이 피지에 정착해 살면서 지금과 같은 인구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어가 공식 언어라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피지 원주민들끼리는 피지어를, 인도인끼리는 힌디어를 사용해요. 피지에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해나가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아요. 물론 저 역시 그들 속에서 함께 지낸 덕분에 열린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어요.

Episode. 1

치안 이야기, 버스카드 시스템 도입 후 일어난 버스카드 도난 사건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많은 교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 나라의 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파견 국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부분이 질병과 치안이었던거예요. 봉사과 교육 등 좋은 목적으로 가는 해외 파견이지만 개인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치안이 좋지 않고, 그나마 피지는 비교적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하나 위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피지 파견 교사 대부분이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고, 대놓고 밀치고는 가방 등을 가져가기도 해서 해가 지면 되도록 밖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런 피지에 2017년 10월, 처음으로 버스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피지 정부는 현금이 아닌 카드로만 버스 요금을 결제하도록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에게는 돈이 충전된 버스카드를 정부 차원에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버스는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버스카드를 분실한 학생은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고, 그 학생은 결국 친구의 버스카드를 훔치는 일이 발생하였죠. 악순환으로 버스카드 도난 사건은 계속되었고, 카드를 잃어버려 우는 학생이 많아졌어요. 한번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카드를 도난당해 울고 있어서 제 버스카드를 빌려주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이조차 피지의 문화 중 한 부분이니 받아들이자는 저를 발견했어요. 또 한번 성장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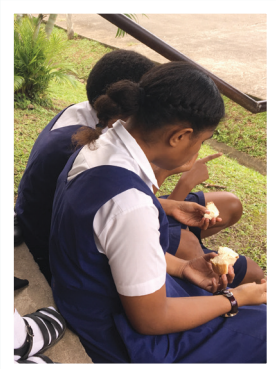
Episode. 2

TMC(Team Mathematics Competition) 참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지에도 다양한 경시대회 및 경연으로 아이들의 역량을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중 국가수학경시대회인 TMC에 참가하였고, 대회 당일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어요. TMC는 동급생 4명이 한 팀을 이뤄 100점을 기본 점수로 한 문제씩 문제를 받으며, 총 20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문제를 맞히면 +5점을 받고, 한 문제당 다섯 번의 기회를 다 쓴 후에도 문제를 틀리거나 도중에 패스하면 -5점이 되며, 한 팀이라도 20번째 문제를 먼저 끝내면 대회가 끝나지요.

국가수학경시대회이다 보니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겠죠? 수학을 잘하는 4명의 아이와 한 달이 넘도록 짬짬이 대회 준비를 이어갔어요. 대회 전날, 아이들에게 “내일 대회는 하루 종일 걸리니까 꼭 점심을 싸 와라” 하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수줍게 웃으며 점심은 안 먹어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아이들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부모님 없이 조부모와 살고 있어 점심을 제대로 싸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빵집에서 크림빵 30개를 샀습니다. 아이들과 대회 날 점심시간에 다 같이 한쪽 계단에 모여 앉아 크림빵을 하나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한 얼굴로 빵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해졌어요. 비록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수학이 더 좋아졌다고 말해주고 고마웠고요. 대회 이후 아이들은 자유롭게 수학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TMC를 계기로 아이들이 발전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Episode. 3

한국어말하기대회 1등!

피지에 와서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중 또렷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인사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어말하기대회에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교재로는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배우 이민호의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며 소리 나는 대로 대본을 만들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연습하면서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심지어 아예 오지 않을 때도 많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이 너무 멀어 그렇겠거니,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났죠. 그러나 만날 때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어요.

대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그 많은 대사를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자신 있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열네 팀의 연기가 끝나고, 시상식 전 채점을 위한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기자가 다가와 아이와 아이 어머니 그리고 저를 급하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우리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감격해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를 했죠.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해 자주 통화하던 아이 어머니는 수상 후 인터뷰에서 “아이가 밤마다 잠들기 전까지 대본을 외웠어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만 보라고 늘 구박했는데 이제는 봐도 뭐라고 하지 말아야겠네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기자는 우리가 우승할 것을 미리 알고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대회를 통해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다음 날, 피지 신문에 우리의 수상 소식이 실렸어요. 기쁜 마음에 제 것 외에 아이를 위해 신문 한 부를 더 샀는데, 아이 역시 저에게 주기 위해 신문을 하나 더 사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피지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불안한 치안 때문에 해가 지면 돌아다닐 수 없어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순수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1년을 살다 보니 제 영혼도 더불어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피지 내의 학교라도 각각 문화가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 다른 만큼 지금 소개하는 피지 이야기는 순전히 개인의 생각과 의견임을 밝힙니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석양이 예쁜 나라, 사람들의 미소가 예쁜 나라, 피지 안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Vinaka Vakalevu(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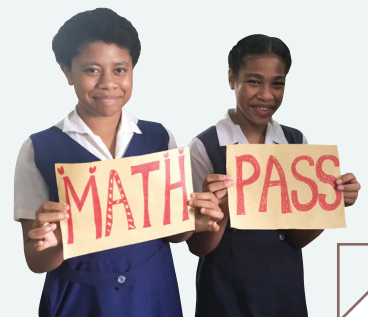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상 신문기사

이민정

인턴 작전여고 수학교사. 1년의 해외 파견 교사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과 함께 웃던 시간이었다. 그 웃음을 마음에 잔뜩 담아 온 것이 가장 기쁘다. 이제 밝은 웃음을 한국의 아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피지 파견 생활 중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블로그에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께서는 블로그(blog.naver.com/ibagwon1)를 방문해 주세요. 아이들과 학교에서 만든 수학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 올려두었는데요, 'fiji math'를 검색하면 귀여운 피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정말 세상을 바꿀까?

이미 우리 삶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기술

1995년, 샌드라 불럭이 주연한 영화 <네트>가 개봉했다. 주인공 안젤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가벼운 일을 맡았다가 갑자기 세상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알고 보니 안젤라가 받은 파일은 극비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가 그녀의 온라인상 개인 정보를 모두 지운 뒤 수배 인물 정보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답게 <네트>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온라인상 우리의 정보는 그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기술은 그래서 탄생했다. 쉽게 말해 이 기술은 마법 통장과 같다.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통장 하나를 같이 쓰면서 통장 내역을 모두 똑같이 복사해 나눠 가지고 있다. 내역은 주기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며, 서로 기록한 내역을 비교해 누군가 사기를 치지는 않는지 살피고, 새로운 거래를 승인하기도 한다. 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같은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은행은 따로 없다. 통장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마법 통장이 가진 특징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이다. 보안성이 아주 강력하면서도 증명을 위해 연대보증을 설 사람이나 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다시 영화로 되돌아가보자. 형식은 다르지만 21세기에도 영화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악당들은 내 정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를 활용해 사기를 친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대포폰을 만들거나,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일이 그것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SNS에 스팸 게시물에 올라가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지 않아도 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로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 인증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다. 공인인증서 대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한 가지 앱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앱에 로그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이렇게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

누군가는 블록체인 하면 바로 ‘비트코인’을 떠올린다. 비트코인을 지탱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맞는 말이지만 앞뒤가 바뀌



BLOCK

CHAIN

었다. 비트코인을 위해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정말 쓸만한 기술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기술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보증인 없이 거래 참여자들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다시 말해 이제 큰돈을 들여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의료·제조·행정... 다양한 분야로 뻗은 블록체인 기술
장점이 분명해지니 여러 곳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업계는 역시 금융 분야다. 최근 해외 송금 연동 테스트에 성공한 가상화폐 ‘리플(Ripple)’은 은행 간 비효율적 송금 방식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가상화폐로, 해외 송금에 걸리는 시간을 3~4초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러시아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는 정지시켰지만 자체 가상화폐인 ‘암호루블(Cryptorouble)’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NASDAQ Private Market)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 실물 증권을 관리하는 장외 주식 거래소다. 한국은 어떻게?

은행연합회에선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앞으로 회원 포인트 관리, P2P 대출, 모바일 banking, 거래 인증, 공인인증 등 핀테크 기술과 융합하며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활용해 물류업계나 전자 투표, 의료·제조·행정 업무에도 쓸 수 있다. 관세청과 현대상선 등 3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대표적인 예다. 물류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빠르고 투명하게 물류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그 밖에 삼성 SDS는 서로 인증 수단이 다른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계약 플랫폼을 만들었고, 서울 시에서는 중고 자동차의 이력 위·변조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식품안전연합회’를 구성해 돼지고기를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고,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 형태로 행정 전자문서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각각의 병원에 보관된 진료 기록을 환자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각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환자 개인이 관리함으로써 기록이 손상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중국 ‘이지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처럼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도 있고, 임상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환자 진료 내역과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 다를 때 이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한계도 있다. 블록체인 자체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른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야 실제 결과를 거둘 수 있고, 그 분야에선 아직 실증 실험 중이라고 봐도 좋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 기술은 아직 갓난아기나 마찬가지다. 기대는 하지만 호들갑은 떨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볼 때다.



스노보드 동호회 「백스톱」

겨울, 가족이 되는 계절

소치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그 경기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목에 건 세이지 코첸버그는 수상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밤을 가장 즐긴 선수일 뿐”. 그와 같이 겨울만 되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한 시즌 300번 리프트를 즐긴다는 목표로 설원을 달리는 교사들의 모임 ‘백스톱’. 그들을 만나기 위해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날, 강원 정선으로 향했다.



왼쪽부터 전준문(경기 이황초 교사), 정원용(경기 역곡중 교사), 최일동(대구 유가초 교사), 김수정(서울 매향초 교사), 정성준(충남 서산석림초 교사), 이제훈(전남 순천제일고 교사), 김세진(경기 갈매초 교사), 박유빈(경남 창원초 교사), 김지수(경기 이황초 교사), 김진형(서울 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



우리는 겨울마다 가족이 된다

“오늘 눈이 와서 좋네요. 눈 내릴 때 보드를 타면 더욱 신나거든요.” ‘백스툼’ 스노보드·스키 교사동호회 회원에게 1~2월은 1년 중 가장 신나는 달이다. 겨울이 되면 고정 숙소를 마련해 베이스캠프처럼 사용하는 ‘시즌 방’을 개설한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간 시즌 방에 머물며 스노보드에 푹 빠져 지낸다. 기자가 방문한 시즌 방에선 이제훈 교사(전남 순천제일고)의 신입회원을 위한 자세 교정 수업이 한창이었다. 거실에 앉아 그의 수업을 지켜보는 교사들은 지금 이 광경이 매우 즐겁다. 신입 회원인 김수정 교사(서울 매현초)의 서투른 자세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어느 정도 자세 교정이 끝나자 김 교사는 “세진 쌤, 제 텍의 바인딩 각도를 조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라며 자신의 텍을 가져온다. 김세진 교사(경기 갈매초)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바인딩의 각도를 조절한다. 만연니 격인 박유빈 교사(경남 창동초)는 차명진 교사(서울 금북초)의 부상을 살핀다. “명진 쌤, 다친 곳은 좀 어때?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들의 대화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따뜻함이 느껴진다. 매해 겨울 시즌만큼은 가족이 나 다름없다.

슬로프스타일(Slopestyle) 출발 시 장애물(지방)을 통과해 빅 에어에서 회전 기술을 선보이는 경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자내지만, 기술을 선보이는 사람에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목



열정 가득한 교사들의 배려로 전통을 이어가다

백스툼의 역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뒤늦게라도 의미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취하자’는 의미로 스노보드를 사랑하는 열혈 교사들이 창단해 지금까지 백스툼을 거쳐 간 교사만 5000명이 넘는다. 그 결과 매년 서울에서 네 번 이상 스노보드 연수를 운영, 전국 최고의 교사 스노보드 동호회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에서 23명의 교사가 주주가 되어 시즌 방에 머문다. 교직에 몸담고 있으며 스노보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많은 교사가 주주가 되며, 카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시즌 방으로 운영되기에 당연히 숙소 생활에서의 규칙도 존재한다. 한 숙소에서 생활하므로 남녀의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고, 같은 직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새벽 1시 소등 이후 아침 7시 30분 기상까

지 화장실조차 조심스레 사용한다. 고된 강행군으로 인해 코를 고는 것마저도 미안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는 전통으로 대물림되어 창단 이래 큰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젊은 교사로 이루어져 1년에 한 커플 정도가 탄생하는 축복도 더러 있다.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믿음

김수정 교사는 ‘교사의 경험이 풍부해야 아이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믿는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도전정신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백스툼에 들어왔다. “입문하는 단계지만 스노보드를 통해 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눈 위에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뎅이 같은 뚝심이 보인다.

백스툼 회장인 공용배 교사(서울 송례초)의 부재로

회장 대행을 맡고 있던 정성준 교사(충남 서산석림초)는 스키장에서 초등학생 또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눈발 위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기본기를 가르치는 열혈 교사다. 그는 매너리즘에 빠진 선배 교사들로 인해 ‘과연 교직 사회가 진짜 사회생활일까?’라고 생각하며, 첫 발령을 받기 전 다양한 경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경험이 앞으로 만날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라면서.

“제자들은 저를 ‘특이한 쌤’ ‘재미있는 쌤’이라고 표현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서 더 이상 특별한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아요.”

최일동 교사(대구 유가초)는 “교사에게도 수많은 고충이 있어요. 교사도 사람이니까요”라며 해방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곳에 모인 모든 교사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스스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믿음, 그것 말이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되면 동호회 카페(cafe.daum.net/backstorn)가 바빠 움직인다. 그리고 겨울을 기다린다. 시즌 방이 만들어지고, 제 2의 가족인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겨울을 보내는 것.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취재 당일 피치 못한 부상으로 취재에 참여하지 못한 백스툼 회장 공용배 교사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훈 교사의 스노보드·스키 부상 예방을 위한 팁 5



1. 자신의 몸에 맞는 장비 착용
2. 운동하기 전 20분 정도 준비운동
3.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 선택
4. 넘어지는 연습 필요
5. 피로를 느낄 땐 휴식

엄지손가락 골절
스키 폴의 끈에 휘말려 발생

점프와 같은 공중요기 즐기다가
척추 골절, 꼬리뼈 골절



손목 골절
스노보드 부상의 대부분을 차지

무릎 관절 및 대퇴부 부상
스키 부상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스노보드도 부상 우려

차례상, 지역마다 다른 이색 음식

설날, 우리만 먹는 먹거리



계적

충청도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적이다. 계적은 통째로 삶은 닭 위에 달걀지단을 올려 만드는 것으로 예전에는 꿩고기로 만들었다. 꿩이 줄어들자 닭고기로 대체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충청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어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하다. 경북과 가까운 충청 지역은 대구포·상어포·가오리포·오징어·피문어 등의 건어물을 올리고, 전북과 인접한 지역은 말린 홍어·병어·가자미·낙지·서대목 등을 올린다. 내륙 지역은 배추전, 무전 등 부침개류를 많이 올린다.



홍어, 꼬막

예로부터 전라도는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가 풍부했다. 종류가 많았기 때문일까. 음식마다 들이는 정성도 대단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귀한 음식으로 홍어를 쳤다. 지금도 명절은 물론이고 잔치나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홍어는 찜이나 포, 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차례상에 올린다. 입과 내장이 작고 살집이 통통한 병어 또한 전라도 사람들이 차례상에 많이 올리는 생선. 보통 6월에 잡히는 병어가 살이 단단하고 알이 가득해 6월에 미리 구매해 냉동 보관했다가 차례상에 올린다. 전남 지역 차례상에는 제사꼬막이라고 불리는 참꼬막이 빠지지 않는다. 주름이 깊고 선명한 참꼬막을 양념 없이 데쳐 올리는 것. 소고깃국 대신 낙지나 해산물로 끓인 연포탕을 올리기도 한다.





강원도

메밀전, 명태

강원도 산간 지역은 감자, 고구마의 주요 산지답게 차례상에 채소전을 올린다. 특히 메밀이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한 평창은 부추, 당근, 오징어 등을 메밀 반죽과 섞어 부친 메밀전을 차례상에 올린다. 메밀 만두피에 고기, 김치, 두부로 속을 채워 빛은 메밀떡만듯국도 즐겨 먹는다. 강원도 해안 지방은 생선을 많이 올리는데, 과거 동해 인근 해역에서 풍부하게 잡힌 명태가 대표적이다. 소금 간을 한 가자미, 방어, 연어, 대구 등의 생선에 석이버섯 채와 실고추를 곁들여 고명으로 얹어 찜통에 쪄 올리거나 생선전으로 만들어 차례상에 올린다.

경상도

돔배기, 통문어

경상도는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 요리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민어, 조기, 가자미, 방어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차례상에 올린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참상어살을 구워 적으로 올리는 '돔배기'를 빼놓을 수 없다. 돔배기는 상어고기를 토막 낸 뒤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음식으로, 주로 산적으로 올린다. 보통 붉은색이 나는 고춧가루는 귀신을 쫓는다는 설이 있어 차례 음식을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안동에서는 고춧가루로 만든 안동식혜를 올리기도 한다. 통문어는 안동을 비롯한 영덕 지역에서 빼놓지 않고 올리는 차례 음식이다. 문어를 통째로 쪄 푸짐하게 차례상에 올려 조상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문어의 '문' 자가 '글월 문(文)'으로 선비를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제주도

보리빵, 옥돔, 굴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이 육지와 사뭇 다르다. 그중 하나가 빵이다. 제주도에서는 차례상에 떡 대신 빵을 올린다. 화산섬이니만큼 예로부터 논이 적어 쌀이 귀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보리로 빵을 만들어 올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제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팥빵이나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도 자연스럽게 올리고 있다. 그 외 제주도 지역 특산품인 굴과 옥돔도 올린다. 반면, 다른 지방의 차례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추나 밤은 거의 올리지 않는데, 이 역시 쌀처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09년을 거슬러 올라 만나는

비밀의 정원



창
경
궁

대
온
실



창경궁 명정전을 지나 춘당지로 향하던 무렵, 하얀 건물이 눈에 띈다. 눈부시게 하얀 철골과 목재 그리고 투명한 유리창이 태양 아래 반짝 빛난다. 그동안 비밀의 정원이라 불린 '창경궁 대온실'이다. 109년 전 모습 그대로, 비밀의 문이 다시 열렸다.





비밀 정원의 문 뒤엔 차가운 역사가 머문다

대온실의 시작은 서글픈 역사와 함께했다. 1907년, 일제는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한 뒤 전각들을 헐어 동·식물원을 만들었다. 왕을 위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무릇 조선 궁궐의 권위를 격하하기 위함이었다. 대온실은 그렇게 탄생했다. 일본 왕실의 식물원 책임자였던 후쿠바 하야토가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을 마쳤다.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은 철거했지만, 창경궁 대온실만큼은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로 등록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됐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건물에서 시린 역사의 눈물이 흐른다.

아름다운 빛과 그림자로 새로운 기억을 쌓는다

문과 지붕 용마루 등 대온실 곳곳을 살펴보면 유독 꽃

무늬가 눈에 띈다. 바로 오얏꽃이다. 오얏은 자두의 순 우리말로 조선 왕실의 문양이었다. 오얏꽃 문양으로 장식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온실답게 따뜻한 공기가 먼저 반긴다. 그 뒤로 커다란 동백나무부터 천연기념물 향나무를 비롯해 70여 종의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사라세니아, 무늬 아비스 등 보기 드문 꽃들이 앙증맞게 인사한다. 팡팡나무, 호랑가시나무, 미선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후계목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꽃들의 아름다움을 만났다면 유리 천장을 통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빛줄기도 만끽해보자. 시간대에 따라 그림자의 차이도 선명해 즐거움이 더하다. 혼자도 좋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기억과 함께 말이다.

창경궁 대온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02-762-4868 cgg.cha.go.kr

크로아티아를 처음 찾았을 때, 자그레브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고 10여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이 왜 크로아티아를 그렇게 여행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오래된 골목을 따라 늘어선 붉은 지붕 그리고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햇살. 사람들은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고, 건물마다 자리한 고풍스러운 카페에서는 수많은 여행자가 느린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아드리아해의 달콤한 시간을 감각하다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반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나는 문득 20여 년 전 어느 여행을 떠올렸다. 김포발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솜털 같은 구름이 날개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다. 베이징을 거쳐 네이멍구의 사막까지 열차 여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내게 여행이라고 할 만한 첫 여행이자 바다를 건너는 첫 여행이었다.

많은 여행이 그렇듯, 그 여행도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떠나기 며칠 전, 친구가 물었다. “여행 가지 않을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가자. 그런데 우리가 왜 여행을 떠나야 하지?” 친구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기 어려울 거야. 정신없이 바쁠 테니 말이야. 그때는 아마 지금 여행을 떠나지 못한 걸 엄청 후회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여행. 아마도 사막이었던 것 같고, 밥을 먹을 때마다 모래가 한 움큼씩 씹혔던 것 같

다. 어쨌든, 난생처음 탄 비행기가 지상을 벗어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중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 느낌. 5도 정도 선체를 기울인 비행기가 활주로를 한 바퀴 천천히 선회할 때, 나와 친구는 서로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날아가고 있어.’ 그 미소는 평생에 딱 한 번, 오로지 그 순간에만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어쩌면 그 느낌을 잊지 못해 여행작가로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드디어 이곳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 비행기가 텅 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순간, 가슴 가득 차오르던 위안의 분위기. 그것은 분명 기차나 버스, 자동차가 출발할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세금과 할부금과 가족과 보고서, 기쁨과 흥수, 지진과 학살, 우리를 움아매고 있는 모든 시시하고 뻔하고 잔인한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안도감.

크로아티아를 여행하기 위해 자그레브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도 비슷한 감정과 기분을 느꼈다. 자그레브로 향하는 비행기는 런던이나 시애틀, 시



ISTRIA, CROATIA

드니, 방콕,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외는 뭔가 달랐다.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국의 언어로 흘러 나오는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여행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사랑한 마을, 모토편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 보는 크로아티아는 빼어난 풍광과 온화한 기후로 오래 전부터 유럽인에게 인기를 누려온 여행지다. 쪽빛 바다와 하얀 대리석 건물, 붉은 기와지붕이 어우러진 크로아티아의 풍경은 여행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수도 자그레브나 아름다운 해안 도시 스플리트 등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낮이 익다든지 혹은 언젠가 와본 적이 있다는 기시감을 느끼곤 하는데, 어쩌면 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열광해온 <미래소년 코난> <빨간 돼지> <마녀 배달부 키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등 그가 만든 많은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이다. <빨간 돼지>에서 돼지가 비행기를 타고 누비던 바다가 바로 아드리아해이고, <마녀 배달부 키키>에서 주인공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던 곳이 두브로브니크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플리트비체가 배경이다. 이스트리아반도는 우리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그나마 풀라(Pula)가 조금 유명하다. 이스트리아반도의 최대 도시이기도 한 풀라는 18세기 말까지 베네치아, 합스부르크, 헝가리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시내 곳곳에는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콜로세움을 비롯해 고대 로마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풀라와 가까운 모토편(Motovun)은 해발 277m 절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영화 마니아들에게는 모토편 국제영화제로 잘 알려져 있다. 까마득한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은 탓에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모

토편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배경이 된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은 매우 아담하다. 천천히 걸어 2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인구는 1500명 정도.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로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그리고 이 좁은 골목을 오래된 자동차들이 부르릉거리며 돌아다니고, 마을 아래로는 드넓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펼쳐진다.

모토편은 푸아그라, 캐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진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송로버섯(트뤼프)으로 유명하다. 송로버섯은 인공 재배가 되지 않고 생산량도 아주 적어 ‘식탁 위의 다이아몬드’ ‘요정들의 사과’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 크로아티아 모토편에서만 나는데 땅속에 파묻혀 있어서 사람 힘만으로는 채취하기가 어려워 냄새를 잘 맡는 사냥개를 앞세워 수확한다. 값이 비싸니 작은 송로버섯이라도 말려서 이를 갈아 파스타나 올리브유, 수프 등 각종 음식에 넣는다. 조금만 넣어도 “송로버섯 넣었네”라고 알아챌 정도로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1. 언덕 꼭대기에 성처럼 자리한 모토편.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2. 모토편의 작은 송로버섯 레스토랑. 모토편은 세계 3대 진미로 손꼽히는 송로버섯(트뤼프)으로 유명하다.
3. 송로버섯은 조금만 넣어도 알 정도로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모토분 마을은 매우 아담하다. 천천히 걸어 2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인구는 1500명 정도.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로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그리고 이 좁은 골목을 오래된 자동차들이 부르릉거리며 돌아다니고,
마을 아래로는 드넓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펼쳐진다.



2

3



1



2



여행 정보

인천국제공항에서 크로아티아로 바로 가는 직항 편은 없다. 프랑크푸르트 등을 경유해 자그레브로 가야 한다. 루프트한자 항공(www.lufthansa.com)을 이용하면 편하다. 크로아티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크로아티아 관광청 홈페이지(croatia.hr)를 참조하자. 크로아티아의 화폐 단위는 쿠나(Kuna)로, 1쿠나는 우리 돈으로 170~180원이다. 크로아티아는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번갈아 나타나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다.



작은 마을들의 향연

모토분에서 미니버스로 약 40분 떨어진 도시 포레치(Porec)도 흥미롭다. 역사가 2000년이 넘는 만큼 도시 곳곳에 로마 건축물과 중세 기독교 성당의 흔적이 또렷하다.

포레치 시가지를 걷다 보면 길에 깔린 반질반질한 돌에 눈길이 간다.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그대로라고 한다. 데쿠마누스(Decumanus)와 유프라지이에바(Eufrazijeva)가 당시의 거리인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에우프라시우스 성당(Episcopal Complex of the Euphrasian Basilica)과 만난다. 고전적이면서 비잔틴 양식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당은 바닥과 천장, 벽면에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이 가득하다. 1997년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스트리아반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브로브니크에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 아드리아해와 접한 로비니(Rovinja)라는 도시인데, 언덕 위 우뚝 솟은 유페미아 사원(Cathedral of St Euphemia)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로비니 역시 모토분, 포레치 등 아드리아해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느긋한 걸음의 산책이 어울리는 도시다. 아드리아해의 찬란한 햇살은 붉은 테라코타 지붕 위로 폭포처럼 흘러넘치고, 에메랄드빛 바다는 햇살을 튕겨내며 여행자의 시선을 어지럽힌다. 로비니를 여행하는 방법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골목을 누비며 돌아다니는 것.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니만큼 식당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해산물 요리를 맛보는 것도 좋다.

독특한 향과 맛의 크로아티아 와인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만큼이나 즐겨 마시는 것이 와인이다. 우리에게는 크로아티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에선 꽤 유명한 와인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생산된다. 이스트리아반도의 와인으로는 청포도 말바지아와 검은 포도인 테란으로 만든 것이 유명하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와인을 마실 때 쿨렌이라는 소시지를 곁들인다.

상상해보시라. 당신은 지중해식 건물이 늘어선 이국적인 골목을 걷고 있고, 발등 위로는 사금파리 같은 햇살이 반짝인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코끝을 간질이는 진한 에스프레소 향. 어떡해야 할까. 노천카페에 앉아 햇살과 정면으로 마주하든, 파스텔 톤 건물 사이로 난 골목을 따라 정처 없이 산책을 즐기든,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올리브유를 잔뜩 발라 구운 농어 요리와 와인을 즐기든, 시간은 무조건 당신 것이고, 당신에게 한없이 너그러울 것이다. 또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낭비할지라도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짐을 챙겨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떠나지만 앓는다면 말이다.

1. 푸른 아드리아해와 마주한 아름다운 항구도시 로비니.
2.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 포레치.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길이 아직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3. 에우프라시우스 성당 내부. 바닥과 천장, 벽면에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이 가득하다.
4. 포레치 골목을 산책하다 만난 풍경.
5. 크로아티아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와인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인을 맛보는 것도 크로아티아 여행의 즐거움이다.



대전 핫플레이스

김유리
대전 목동초
선생님이
추천하는

대전에 발길이 머문다. 예로부터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교통의 요지로 불렸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중간에 위치하는 데다, 경부선·호남선의 기차길과 경부·호남고속도로 등 다양한 길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삶이 재미있는 도시'라는 슬로건처럼 색다른 즐거움으로 전 국민에게 매력을 뽐내고 있다.



A 성심당



‘대전 하면 성심당, 성심당 하면 대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전의 아이콘이 됐다. 성심당의 스테디셀러로는 기름에 튀겨 팔을 넣은 튀김소보로와 고무마가 들어간 튀소구마가 있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본점에 가지 못했다면 대전 역점에 들러보자. 튀김소보로가 만 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다른 빵과 달리 튀김소보로와 판타롱부추빵은 구매 공간이 나누어져 있으니 유의하자.

📍 중구 대종로480번길 15



B 동춘당 (同春堂)



보물 제209호 ‘늘 봄과 같다’는 뜻의 동춘당은 조선 중기의 건축물로 효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송준길의 호를 따서 만든 별당이다.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된 소대헌, 호연재 고택을 합쳐 동춘당공원이라고도 불린다. 동춘당공원에 도착하면 고택 담장 너머 아주 큰 배롱나무가 반기는데, 영롱함을 선물한다. 평일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열린시민학교를 운영한다.

📍 대덕구 동춘당로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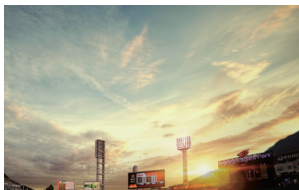
C 장태산자연휴양림



전국 최대 규모인 메타세쿼이아숲에 탄성을 자아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오전에 방문하면 역광이 비춰 더 예쁘다. 숲속어드벤처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스카이웨이를 지나 스카이전망대에서 보이는 메타세쿼이아 길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쉽게도 숲속어드벤처를 비롯해 스카이웨이 및 전망대 이용이 제한된다.

📍 서구 장안로 461

D 한화생명이글스파크



프로야구팀 한화이글스의 홈구장. 한화이글스 팬들의 마성의 응원가 나는 행복합니다와 8회 말 육성응원으로 유명한 ‘최강한화’를 들을 수 있다. 야구장 하면 치킨이 떠오르지만, 한화생명이글스파크의 대표 먹거리를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원정 팬들에게도 ‘농심가락’의 가락떡볶이 등은 계속 생각나는 맛으로 유명하다.

📍 중구 대종로 373

E 대동하늘공원



데이트 장소이자 야경 명소 손꼽히는 곳. 지하철 대동역 8번 출구로 나와 대동하늘공원으로 향하기까지 거리가 꽤 있지만 걸어가길 추천한다. 시간이 멈춘 골목길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하다. 옛날 골목 거리를 지나면 오밀조밀한 벽화마을에, 더 오르면 하늘공원에 도착하는데, 대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커다란 풍차 사이로 노을이 지는 모습이 낭만적이다.

📍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182

F 대청호



잔잔한 호수가 아름다운 곳. 대청호 길 따라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벼운 산책도 추천한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는 있다. 숨 가쁘다면 곳곳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대청호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 조금 더 걷고 싶다면 대청호오백리길을 추천한다. 대청호를 중앙으로 총 200km가 넘는 이 길은 제주의 올레길처럼 구간별로 나뉘어 있다. 그중 4코스는 약 10km로 가벼운 트레킹에 알맞다.

📍 동구 천개동로 41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이 자랑하고픈 곳이 있으신가요? <The-K 매거진>에 자신이 근무하는 곳, 살고 있는 곳 주변의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숨은 맛집, 가고픈 카페, 그윽한 풍경, 떠들썩한 유흥지, 머물고픈 공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함, 연락처, 추천 장소와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께 <The-K 매거진>이 연락드립니다. 원고 게재 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The-K와 함께 떠나는 2월 문화가 있는 날



셰익스피어가 탄생시킨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악인

리처드 3세

15세기 영국, 수많은 피를 부른 희대의 악인이자 요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인 '리처드 3세'가 연극무대에 오른다. 리처드 3세는 뛰어난 권모술수와 유머, 총명한 식견을 지닌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항상 뒷전이다. 결핍과 콤플렉스로 그의 욕망은 갈수록 커져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기 시작한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그로 인해 맞는 파국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리처드 3세 역은 국민 배우 황정민이 맡았다. 그의 10년 만의 연극무대 귀환과 원 캐스팅으로 대중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 정웅인, 김여진 등도 원 캐스팅으로 무대에 오른다.

- 📅 **일시** ~3월 4일(일)
- 📍 **장소**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
- 💰 **관람료** R석 8만8천원 / OP석 7만7천원 / S석 6만6천원 / A석 3만3천원 (중학생 미만 입장 불가)
- 🎵 **프로그램** 셰익스피어 원작, 하나의 왕좌를 놓고 펼쳐는 피의 대서사시
- ☎ **문의** 1544-1555

모더니즘 디자인을
완성한 디자이너

알렉산더 지라드, 디자이너의 세계

알렉산더 지라드의 국내 첫 회고전 <알렉산더 지라드, 디자이너의 세계>이 2018년 3월 4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미국 모더니즘 디자인을 대표하는 알렉산더 지라드는 가구, 인테리어 건축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상업 디자이너다. 알렉산더 지라드의 작품 5000여 점을 소장한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의 세계 순회 전시 중 하나인 이번 전시는 그중 700여 점의 작품을 총 4개 파트로 구성해 선보인다. 그가 추구한 토탈 디자인과 당시 모더니즘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 **일시** ~3월 4일(일)
-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5, 6전시실
- 💰 **관람료** 성인1만3천원/청소년(만 13~18세) 1만원/어린이(만 5~12세) 8천원
- 👥 **구성**
 - 1부 인테리어 디자인
 - 2부 컬러, 패턴, 텍스타일
 - 3부 기업에서 토탈 디자인으로
 - 4부 수집과 설치
- ☎ **문의** 02-6273-4242



지친 삶을 보듬어 시대와 호흡하는 국악,
양상블 시나위

사랑이여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소통하는 창작 음악 그룹 '양상블 시나위'가 <사랑이여>로 찾아왔다. <사랑이여>는 자유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로하는 공연이다. 전통음악 중 즉흥으로 연주하는 시나위로 희망과 평화, 사랑의 이미지를 노래하는데, 이 모든 것을 씻김굿과 연주, 춤, 시 등 다양한 장르와 혼합해 펼친다. 아쟁과 가야금, 양금, 판소리, 무가, 굿장단 등의 시나위 합주와 피아노, 합창 등 장르를 뛰어넘는 현대음악의 요소를 더해 풍성한 울림을 만든다. 올해는 사물놀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김덕수가 특별 출연한다.

- 📅 **일시** 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 2월 24일(토) 오후 5시
- 📍 **장소**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 🎫 **관람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 **프로그램** 자유와 사랑을 위해 인생을 바친 청춘들과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모더니즘 굿 공연
- ☎ **문의** 053-668-1800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퀸틴 블레이크

스위트 팩토리 (SWEET FACTORY)展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내 친구 꼬마 거인>의 원화가로 유명한 퀸틴 블레이크는 편안한 그림체로 60년 넘게 큰 사랑을 받아온 영국의 국민 작가다. <KT&G 상상마당 20세기 거장 시리즈>의 다섯 번째 전시로서 이번 전시에서는 퀸틴 블레이크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의 그림뿐 아니라 글을 포함한 작품 18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영국의 <펀치 매거진(Punch Magazine)>에 수록된 초기작부터 고전 문학 작품의 삽화, 병원, 극장, 공원 등 런던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미발표작까지 원화의 감동을 생생히 전한다.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심에 젖을 수 있는 따스한 전시다.

- 📅 **일시** ~2월 20일(화)
- 📍 **장소**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
- 🎫 **관람료** 성인 8천원/청소년(초·중·고)·65세 이상 3천원/어린이(만 4세~미취학) 2천원
- 🏠 **구성**
 - 1 초기 작업(Early Work)
 - 2 고전문학(Classics)
 - 3 저자들과의 협업(Collaboration with Other Authors)
 - 4 퀸틴 블레이크의 책들(Books Written & Illustrated by Quentin Blake)
 - 5 병원 프로젝트(Hospitals)
 - 6 책 외의 작업들(Commissions)
 - 7 한국에서 사랑받는 책들(Books Popular in Korea)
- ☎ **문의** 02-330-6229



손꼽아 이사를 기다렸지만, 다가올 이사철을 생각하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을뿐더러 전세금마저 상당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낼 수는 없는 노릇.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내 집 마련 시기나 방법, 지역 선택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이 살아갈 보금자리는 투자나 수익률을 떠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실거주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사철, 내 집 마련은 실거주 청약 전략으로

2018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체크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된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가 붙고 양도세 기본세율 6~40%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로 세율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준공까지의 이익금에 부가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의 소득 부채 산정 방식과 계산법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더불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도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더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후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주택청약,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올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저렴한 분양가는 민영보다는 공공 아파트가 유리하다. 예전부터 공공분양 아파트는 로또라고 불릴 만큼 경쟁률과 인기가 높았다. 주변 시세의 80% 내외로 저렴하게 분양할 뿐 아니라 향후 그 지역의 토지 가격과 집값 상승분에 편승하면 결과적으로 반값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부동산114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중 강남권의 경우 수서동에 있는 강남데시앙포레가 2013년 3.3m²당 분양가 1355만원에서 2017년 기준 3182만원으로, 비강남권의 경우 마곡동 마곡엠밸리 7단지가 2013년 1209만원에서 2788만원으로 상승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가치와 매력이 상당히 높음을 증명한다.

공공 물량은 주로 공급면적 85m²(34평) 이하의 국민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다.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 청약 기간과 액수가 중요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로서 월 10만원까지 인정받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된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반영하는 민영 가정제보다 점수산정이 간단한 만큼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다. 인기가 높았던 판교, 우레, 세곡, 내곡, 마곡의 경우 15년 이상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정도였다.

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지구이자 연구기업 도시인 마곡엠밸리 9단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주택 구입 자금 능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과중한 대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서울시가 시행하는 시프트 같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로서 자동차가액 기준과 자산금액 기준, 월소득 기준이라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젊은 직장인인 경우 소득이 적어 미리 준비하면 입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당첨되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장기 거주하면서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 종잣돈 마련에 더욱 힘쓸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펀드, 리스크도 따져 봐야

부동산은 실거주와 별개로 오피스텔, 상가 등에 임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적인 투자 방식을 권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직접투자 시 리스크가 크고 대출을 포함해 초기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늘고 있다. 아직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대다수지만 최근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공모형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투자 대상 또한 국내 오피스 투자에서 해외 부동산까지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5~10%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물론 펀드의 성격상 언제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라 환금성이 떨어진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익률과 환율 등락이 크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봄맞이 전세 이사 시, 이것만은 꼭!

봄맞이 이사를 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사안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세 계약 이사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자.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주소 및 소유주, 가압류, 가처분 여부를 꼼꼼한 체크다. 본인 전세금과 대출금이 시세에 60~70%를 넘는 경우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집값의 등락폭이 큰 요즘에는 전세 금액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강통전세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너무 높거나 시세가 떨어질 것 같은 입지라면 계약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반드시 소유주와 계약하고 위임장이 있을 시 집주인과 통화한 후 꼭 인감을 받아둔다. 등기인과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집주소가 서류와 같은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후 지급하고, 한 번에 완납하기보다는 두 번 정도로 나눠 지불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정리하면 부동산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기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저축 기간이나 액수를 꾸준히 높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개발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실거주와 투자 모두를 일거양득할 수 있는 기회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실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역 5분 이내 거리, 주변 직장 및 학교 위치 여부, 연식 노후 문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 주식은 기업 분석이고, 부동산은 입지 분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지만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자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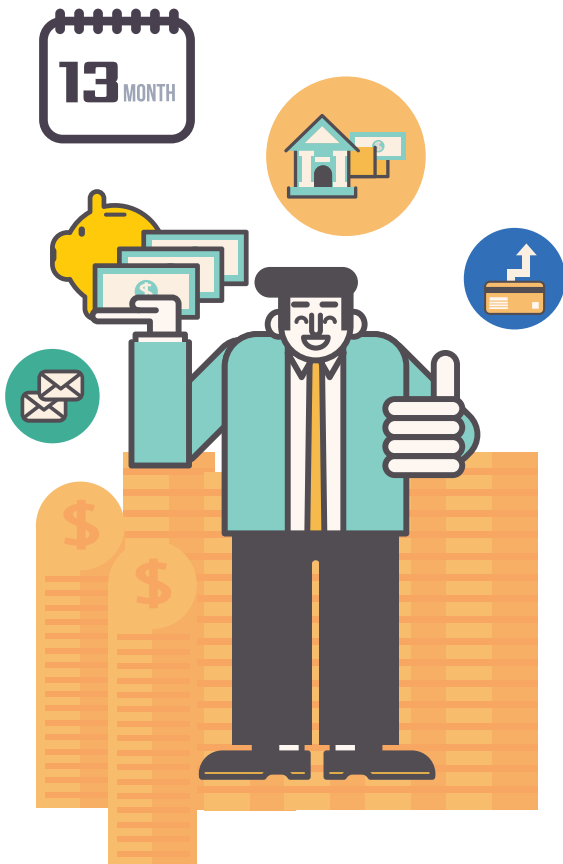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돌려받자!

보험세액공제, 카드소득공제 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2017년도)이 올해 3월 10일 자로 마무리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지만, 2018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보험상품과 관련한 절세 노하우를 기억해 두었다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말자. 더불어 카드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법도 준비했으니, 2018년 최대한 아껴보자. 가자아~!



보험상품 절세 노하우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는 보험금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소득세법 제59조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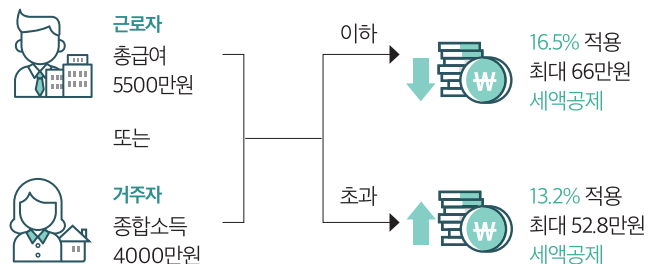
계약자	피보험자	대상계약
 근로소득자 본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 등	 소득세법(50조)상 기본공제대상자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 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험, 신탁,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직원공제 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충족 필요

2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연금저축 상품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 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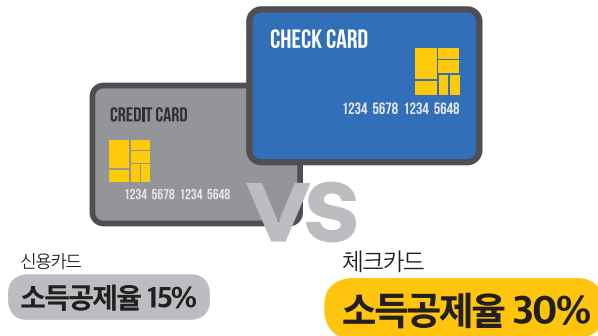
연간 납입 보험료 최대 400만원 불입 시



카드소득공제 최대한 받는 법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기

-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 근로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 25% 초과분의 15~30% 해당금액을 연간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 주의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연봉수준	카드사용액	체크카드 사용 시(a)	신용카드 사용 시(b)	차이(a-b)
3천만원	1천5백만원	약 37만원	약 19만원	약 18만원
5천만원	2천5백만원	약 50만원	약 31만원	약 19만원
7천만원	3천5백만원	약 79만원	약 69만원	약 10만원



2 카드소득공제 제외 대상 거래인지 미리 체크하기

- 모든 카드 결제 금액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

☑ 알아두기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 결제 금액의 **10%까지**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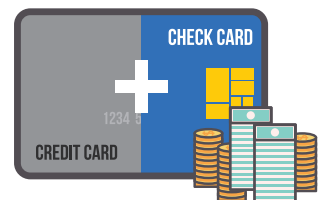
3 신용·체크 겸용 카드로 알뜰 지출하기

-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할까?

카드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전까지, 카드 사용 금액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최근 출시되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못지않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 신용·체크 겸용 카드란?

개인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으면, 사전에 정한 카드 사용 금액 이내에서 체크카드 기능이 되고, 그 이상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혹은 할부 기간)에 카드 결제 금액이 청구 되는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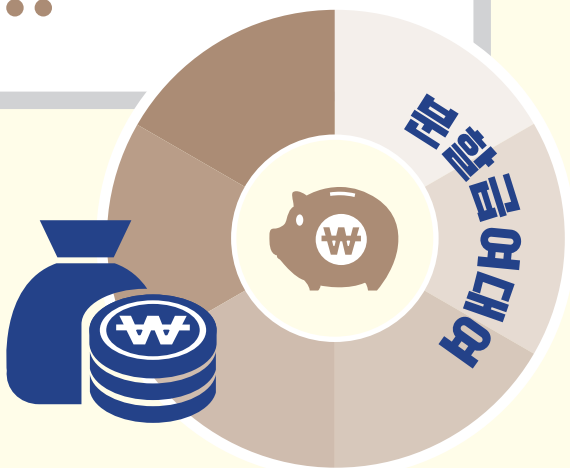
☑ 주의하기
신용·체크 겸용 카드는 **카드 이용액이 계좌 잔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이용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이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보험 관련 세액공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 소득세법 등 동자료에 인용된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조하자.

퇴직 시 대여금 갚느라 가입 못했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제 가능하다

공제회 '분할급여대여' 3월 1일 출시

퇴직을 앞둔 공제회원 A씨.
곧 받게 될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헤아려보면
요즈음 마음이 착잡하다.
평생 알뜰살뜰 모은 2억원가량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넣어놓고 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의
버팀목으로 삼으려 했는데,
갑작스레 자식 출가시키며 받은
대여를 퇴직할 때 상환하고 나면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공제회원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다음 아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3월 1일 출시하는 분할급여대여 덕분이다. 분할급여대여는 공제회원이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유 중인 대여를 퇴직급여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저렴한 금리로 일정 기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여 연장과 한도 증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고 싶다면

지난 2015년 출시돼 공제회원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그러나 A씨와 같이 퇴직하며 맞닥뜨리는 대여상환 탓에 부득이하게 가입금액을 줄이거나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즉, 회원이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저축급여를 담보로 한 대여가 있다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서 대여 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할급여대여 출시로 앞으로는 퇴직 시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역시 재직 기간 중 적립한 퇴직급여금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으로 1억원을 받고 대여 잔액 7천만원이 있다면, 기존에는 대여 상환 후 남은 3천만원까지만 분할급여금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대여 잔액 7천만원을 분할급여대여로 신청하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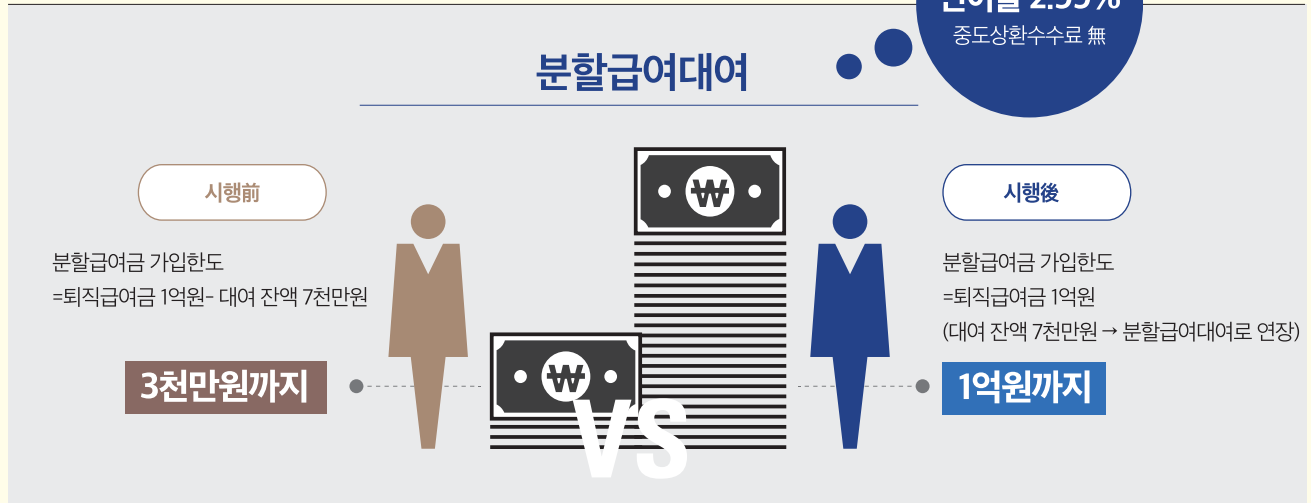
연이율 2.99%,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분할급여대여의 금리는 연 2.99%(변동금리). 최근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금리가 최저 3% 중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최저 3% 초반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자랑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대개의 시중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

퇴직급여금 1억원, 대어 잔액 7천만원이 있는 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연이율 2.99%
중도상환수수료 無

분할급여대어



료를 또한 0.7~1.5%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생길 시 즉시 상환해 이자비용
과 중도상환수수료 모두 절약할 수 있다.

신청 및 상환 방법

분할급여대어는 회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대어 잔액
이 퇴직급여금의 70%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한도 또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기간 미만(최
장 10년)으로 설정 가능하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위
해 반드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퇴직
일 이후 10영업일까지로 사·도지부 내방 및 우편을 통해
서만 할 수 있다. 분할급여대어 제도 안내 및 상품 설계를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회원콜센터(1577-3400)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고이율·저과세 연금형 상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납입한 장기저축급
여를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분할 수령하는 노후 대비 상
품이다. 안정성은 물론 연복리 2.8%의 높은 이율을 자랑
하는 금융상품으로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매년 가입률
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2017년 말 기준 총 1만2134명
의 회원이 9766억원을 가입 중이다.

0~3.46%로 저율과세로 실질 이득이 클 뿐만 아니라, 종
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도해지·운용수수
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자금운용 비용
이 없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금액 한도 내에서 단 1회만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경우
에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퇴직급여
금을 수령하고 나면 가입할 수 없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매력적인 4가지 이유

1 낮은 이자소득세



VS

15.4%

시중 정기예금

2 최고의 안전성



3 수수료 없음



4 높은 실수령액



VS

1,040만원

시중 즉시연금

아주 특별한 시간

The-K손해보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2017년 12월 29일 대전 목동초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진행됐다. The-K손해보험에서 주최한 이 교육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각 다른 교육을 선보인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The-K손해보험 전문 강사를 앞세워 실제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활용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등 철저히 사례 위주로 진행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대전 목동초 강당과 시청각실에 아이들이 모였다. 오늘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있는 날. 이번 교육 대상은 3·4학년 학생들로, 이현주 The-K손해보험 에듀케어팀 과장과 서민호 충청보상센터 서대전팀 과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현주 과장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들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강연 시 교육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교수법을 연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전 지역 학교를 방문하면서 서민호 과장도 함께 강연에 나섰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해준다. 이들은 교통안전교육에 있어 베테랑이다.

초등학생 대상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표지판 구별, 안전띠의 중요성, 도전! 교통안전 지킴이 대장이 되어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띠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현주 과장은 안전띠 중요성의 강연 도중 “사고 난 것을 보고 웃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연하지만, 잘못된 사실은 따끔하게 일러준다.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 위험은 18배 이상이 됩니다. 안전띠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목이 아닌 배를 지나가도록 해야 해요. 배 아프다고 안전띠를 하지 않는 어린이도 있는데, 어린이용 안전띠 가드도 있으니 꼭 착용해야 합니다.”

김가는(4학년 5반) 학생은 아찔한 순간을 공유했다.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쳤어요. 안전띠를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안전띠도 목이 아닌 배에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권소울(4학년 5반) 학생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고 무서웠어요. 우리도 교통안전을 지키는 만큼 어른들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마무리됐다.



INTERVIEW



김유리 목동초 교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영상, 퀴즈, 체험 등으로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주신 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은성(3-5) 최승빈(3-4) 학생

3m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안전 사각지대에서 3m 시야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 팔꿈치 보호대, 다리 보호대를 꼭 착용하겠습니다.



이현주 The-K손해보험 에듀케어팀 과장

처음에는 성인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신나고, 힘나게 합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교육 현장에 널리 알려 The-K손해보험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The-K손해보험 고객센터

- ☎ 1566-3000
(운영시간: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5:00)
- ☎ 1644-7725(인터넷 자동차보험 전용)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 educar.co.kr

또한 The-K손해보험은 교직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운영한다. 보험사기, 음주운전, 급발진 사고 대처방법, 안전운전 팁 등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강연으로 교직원 사이에서도 유익한 연수로 자리 잡았다.

교육가족 위한 맞춤형 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The-K손해보험은 교육가족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 교육가족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차별화된 보상서비스 제공은 물론 학교로 찾아가는 차량무상점검, 스쿨존 안전운전 캠페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 등 교육가족 지원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교육가족은 곧 The-K손해보험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교육가족의 편에서 이해하고 노력한다.

The-K손해보험은 2018년에도 교육가족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눔경영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가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교권침해나 일상생활 중 법적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특화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The·K 손해보험

오직 교직원만을 위한 (무)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



민사소송



- 학교에서 근무 중 발생하는 민사소송(학교폭력, 왕따, 체벌 등) 관련 법률비용 보장
- 개인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도 보장(법률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액, 송달료)

행정소송 및 교원소청심사



-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시 필요한 변호사 비용 보장
- 교원소청심사에서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 시 필요한 법률비용 보장(법률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액, 송달료)

업무과실 중 과실치사상 벌금



- 업무상 과실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비용 보장

자동차 보험

educar 에듀카



선생님이 선택한 자동차보험! 높은 재가입률!
교직원 재가입률 93.2% (2016년 8월 기준)

할인
혜택

적게 타면
**마일리지
할인**

3년 무사고 시
추가할인

블랙박스 장착 시
**한 번 더
추가할인**

(2016년 9월 기준)

선생님을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educar 에듀카 **자랑스런 선생님 패키지 특약** (국내유일)

교직원 배상책임 지원서비스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교직원생활을 위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간 학교폭력 등의 사건(초·중·고) 또는 학교안전사고(유치원)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무상 지원



건강검진
지원서비스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학교방문
교직원 차량 무상점검



스쿨존
안전운전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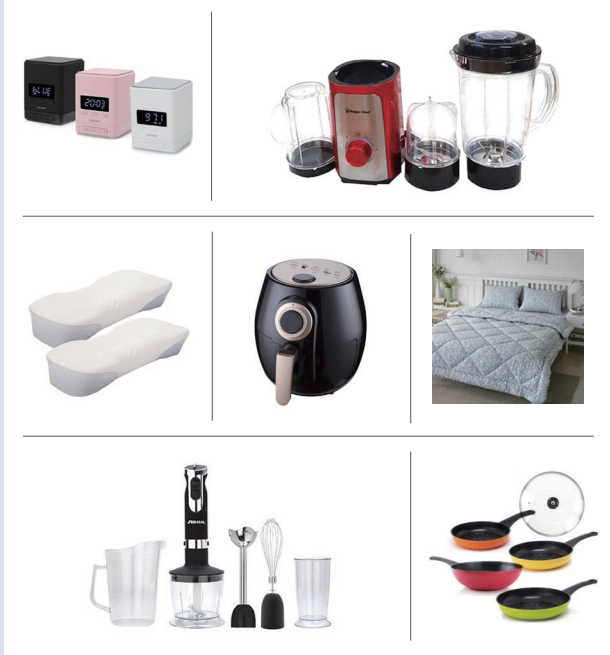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사업



“공제회원 혜택 꼭 챙기세요” ... 복지부조 기념품 변경

2018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복지부조 기념품이 변경됐다. 특히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이불 세트,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새롭게 기념품으로 마련했다. 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가입 시, 결혼 또는 출산 등에 맞춰 기념품을 비롯한 다양한 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조 기념품



*기념품은 위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재가입 축하기념품=공제회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기념 축하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에 최초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신규 회원 가입 축하기념품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한다.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은 재가입기념품으로 미니믹서기를 받을 수 있다. 직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1회만 선물한다. 신규가입, 재가입 후 첫 부담금을 납입한 다음달에 택배로 전달된다.

◆ 특별회원 가입 축하기념품=공제회원으로 퇴직 후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특별회원 가입 축하기념품으로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추베개를 선물한다. 최초 가입 시 1회에 한하며, 중복지급 받을 수 없다.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한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월의 다음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에 가입한 경우 약정월의 다음달에 택배로 전달된다.

◆ 결혼기념품=교직원공제회 가입 후 결혼한 회원에게는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기념품을 선물한다. 올해는 에어프라이어, 이불 세트, 핸드블렌더, 프라이팬 세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부부 회원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기념품은 회원이 직접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시·도지부 내방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부조금 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공제회는 또한 출산축하금, 고구좌회원축하금, 상병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의 축하·부조금이 있으며, 각각 신청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교직원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 런칭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 런칭 이벤트’를 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교직원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 가입 후 이벤트 기간 동안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교직원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는 평상시 건강 관련 상담부터 질병 발생에 따른 관리 서비스까지 전문 분야별 의사·간호사가 상시 대기해 교육가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다.

제공 서비스는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 건강·심리상담, 검진예약 및 검진항목 설계 ▶사고·질병 발생 시 의료 지원 - 전문병원 안내, 진료예약대행, 간호사동행, 차량에스코트 ▶교직원 특화서비스 - 만성질환 관리, 해외급의료지원, 슈퍼마켓, 치매 자가진단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교직원공제회 종합공제(1610)와 더블업종합공제(1610)에 3구좌 이상 신규 가입한 피보험자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백세누리행복공제(기분형, 생애주기형) ▶종합공제(1510·1610) ▶더블업종합공제(1510·1610)에 3구좌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서비스 내용 및 이용신청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ins/healthcare.jsp) 또는 헬스케어 전용 페이지(www.aaih.com/partner/ktcu) 참조.





미국 칼라일그룹 루벤스타인 회장, 교직원공제회 내방



세계 3대 사모펀드(PEF) 중 하나인 미국 칼라일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글로벌 회장이 1월 17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방문, 문용린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글로벌 경제 및 투자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투자국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루벤스타인 회장은 이번 내한 기간 동안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신우 한국투자공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 등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벤스타인 회장의 공제회 방문은 지난 2016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교직원공제회는 현재 칼라일그룹의 펀드를 통해 에너지 기업, 글로벌 우량 기업 등에 투자 중이다. 칼라일그룹은 전 세계 31곳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운용자산은 약 190조원에 달한다.

장애인 교원 위한 교육보조기기 지원사업 업무 협약



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공제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 교원에게 시각, 청각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점자정보단말기, 화상전화기, 특수마우스 등의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수업 준비와 운영 등을 도울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은 공제회 임직원의 기부금과 교직원공제회 사회공헌비를 더해서 조성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은 매년 초 임직원이 개인적인 희망목표와 함께 목표의 달성 또는 실패 시 적립액을 설정해 연말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한편, 공제회는 같은 날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3255여 만원씩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월 27일 한국장애인재단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보조기기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8200여 만원

공제회와 함께하는 멘토링 희망캠프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하는 멘토링 희망캠프 2018’이 1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멘토링 희망캠프에는 대학생 멘토 9명, 중·고생 멘티 17명 등 총 26명이 참가했다. 2박 3일간 뮤직 토크콘서트와 스키 강습 및 체험, 팝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09년부터 대학생 멘토 1명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중·고생 멘티 1~2명을 연결해 학습지도와 고민상담이 이뤄지도록 멘토링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는 전국 공제회 18개 시·도지부별로 선정하며, 매년 60여 명에게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 중이다.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후보자 추천... 2월 9일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부는 2018년 2월 9일까지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한민국스승상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추천대상은 유치원,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문대학,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교원이다. 추천 방법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대한민국스승상.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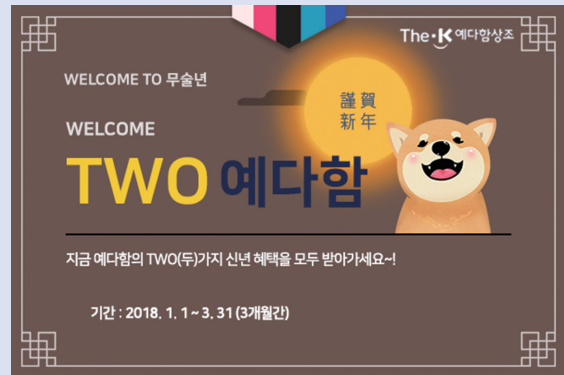
▶시상내역

구분	인원	선발기준	상금
대상	1명	분야별 수상자 중 선정	2000만원
분야	유아교육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교수학습평가에 대한 연구·실천, 교육·학술 연구활동 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인성·민주시민교육 등 학생교육 및 상담 활동에 힘써 존경받는 스승상 확립에 기여한 자 사회봉사활동, 선행 등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3명	
	중등교육	3명	
	대학교육	2명	
			각 1000만원



예다함, 공제회원 대상 할인 프로모션

올바른 상조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The-K예다함상조가 공제회원을 위한 프로모션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 후 가입하거나 다이렉트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6회차 납입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고객에게 모바일상품권 5만원(3회차 납입 이후)도 제공한다. 예다함은 미사용 품목비(수의·도우미·버스·횡대)를 100% 환불해주는페이백 시스템, 부당행위보호시스템, 품질보증시스템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난해 고객감동브랜드지수, 브랜드고객충성도,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한국소비자웰빙지수,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에서 수상한 바 있다. 예다함 가입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통해 가능하다. ☎ 전화 1566-6644



“The-K호텔과 함께 겨울여행 떠나세요”

매서운 추위에도 국내 곳곳으로 겨울여행에 나서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명소에 위치한 The-K호텔이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이며 여행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The-K호텔경주



The-K호텔경주는 공제회원을 위한 ‘겨울여행 패키지’를 2월 27일까지 판매한다.

▶객실(양실) 1박, 조식 2인 구성은 9만9000원~11만5000원 ▶객실(양실) 1박, 수영·사우나 2인 이용권 구성은 9만1000원~10만

7000원이다. 한실 이용 시 5000원이 추가

된다. 설 연휴 기간(2월 15일~17일)은 별도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설날을 맞아 ‘설날 패키지’를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 선보인다. ▶객실 1박, 조식 2인 구성은 14만원~17만원 ▶객실 1박, 조식 2인, 사우나 2인 이용권 구성은 15만2000원~18만2000원이다. 모든 가격은 공제회원가이며, 준특실 이용 시 2만원 추가된다. ☎ 전화 054-745-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축제’ 기간을 맞아 투숙객에게 눈썰매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눈꽃 축제에선 눈꽃등반대회, 눈조각 조형물전시, 각종 체험행사가 열린다. 전남 구례 산동면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온천 시설을 갖춰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좋은 숙소다. 특히 온천수에는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돼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화 061-783-8100

The-K호텔서울

The-K호텔서울은 도심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윈터 패키지’를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 A는 객실 1박, 우철허 조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 B는 객실 1박, 더파크 저녁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 C는 객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매 12만9000원이다. 모든 가격은 공제회원가. 패키지 이용 고객은 호텔 내 우철허·더케이텔리·더파크의 식음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 중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식음료를 20% 특별 할인해준다.

한편, 지난해 오픈한 공제회원 전용 라운지가 연장 운영된다. The-K호텔서울에서 숙박하는 공제회원이라면 우철허에서 다과를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이다. ☎ 전화 02-571-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은 방학을 맞아 제주여행을 떠나는 공제회원을 위해 ‘겨울바다가족여행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1은 객실 1박, 아쿠아플라넷 종합권



2매 13만5000원 ▶패키지2는 객실 1박, 아쿠아플라넷 종합권 2매, 조식 뷔페 3인 21만원이다. 또한 패키지2 상품은 고객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조식 1인 이용권, 아쿠아플라넷 종합권 1매, 감귤라테 2인 이용권 중 하나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패키지는 오는 2월 28일까지 판매한다. 성산읍에 위치한 해양테마파크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제주 앞바다를 재현한 초대형 수조를 비롯해 과학관, 공연장 등이 갖춰져 있다. ☎ 전화 064-729-8100

2월 즉석당첨이벤트

이벤트 기간 2월 1일~28일

당첨에 목마른
그대들이여.
스캔하라,
그럼 당첨될 것이니



QR코드를
스캔하여
지금 바로
당첨 확인하세요!

300매

CU 상품권 5천원권
(모바일)



300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트콘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찍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2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 또는 미기입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프트콘은 3월 중순 발송 예정)

The-K INFORMATION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회원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저축·보험·대여 등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출자회사(호텔·손해보험·실버타운·상조·저축은행·골프장·복지포탈) 및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를 통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고수의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노후 자금 마련 위한 장기 저축
(연복리 3.6%)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풍요로운 노후 위한 연금형 상품 (연복리 2.8%)



목돈급여
현직 회원의 고수익 저축 상품
(이율 2.2% 내외)



퇴직생활급여
퇴직 회원의 노후자금 운용 위한 상품
(이율 2.18~2.8%)



대여

교육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간편하고 신속한 대여제도



일반대여

저축 한도 내 단독대여, 초과 시 보증대여
(연이율 3.6%)



The-K 복지누리대여

최초 대여, 결혼·출산 시 이용 가능
(연 2.99%)



무이자대여

보건의료·재해복구 자금
1~2년 내 원금분할 상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면 다양한 금융·복지 제도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이,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면 특별회원이 됩니다.

- 일반회원 가입자격**
 - 국·공립 각급 학교, 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공무원
 - 사립 각급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 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 등
- 특별회원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 정년·명예·임기만으로 퇴직한 교직원
 -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회원콜센터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회원콜센터

1577-3400

🏠 홈페이지





회원수

77만명



자산

32조원



보험

교육가족만이 가입 가능한
튼튼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제도

보장기간 보장내용	0세	20세	40세	60세	80세	100세	종신
 종합 보험	종합공제 교직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종합보험						
	더블업종합공제 은퇴 이후 2배로 보장받는 종합보험						
 건강·질병 보험	두번보장암공제 두 번째 암까지 보장받는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 100세까지 빈틈없는 설계로 실속 있는 건강보험						
 자녀 보험	자녀공제 월 1만원으로 자녀를 지키는 어린이보험						
	명품자녀공제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는 어린이보험						
 시니어 보험	시니어공제 제2의 인생,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시니어암공제 고령층(고혈압·당뇨환자 포함) 위한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간편가입보험						
재해보험	재해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라이프'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의 보험제도로서 최고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보장합니다. 교직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갱신형이 아닌 확정형 상품
가입시점 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돼 가입자에게 유리



국내 최초 교직원 전용 위험률 적용
및 낮은 사업비 책정
민영사 대비 저렴한 부담금 자랑

※ 자세한 사항은 보험콜센터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콜센터

1577-3993

🏠 홈페이지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